

논문접수일 : 2014.10.05

심사일 : 2014.10.14

게재확정일 : 2014.10.28

조선시대 군사복식의 디자인과 조형적 특성

Design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in the Military Costumes
of the Joseon Dynasty

박 가 영

승의여자대학교 디자인계열 패션디자인전공 조교수

Park ga-young

Soongeui Women's College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 2.1. 조선시대 군사복식
- 2.2. 군사복식과 패션디자인

3. 조선시대 군사복식의 디자인 분석

- 3.1. 갑옷과 투구의 디자인 분석
- 3.2. 군복의 디자인 분석
- 3.3. 용복의 디자인 분석
- 3.4. 기타 군사복식의 디자인 분석

4. 조선시대 군사복식의 조형적 특성

- 4.1. 구조적 활동성
- 4.2. 가변적 기능성
- 4.3. 장식적 심미성
- 4.4. 사회적 상징성

5. 결 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역사적으로 군사복식이 패션디자인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컸기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군사복식의 유물·문헌·회화자료를 가지고 디자인을 분석하고 조형적 특성을 추출함으로써 한국적 패션디자인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갑주(甲冑)는 트임으로 활동성을 높이고 두정 배열 속에 상징성이 있었으며 용과 봉황문양을 최고의 공예기술로 장식하였고 오방색(五方色)을 기본으로 전개한 디자인이다. 군복(軍服)은 트임이 많아서 활동적이고 가변적인 디자인이며 다목적의 기능성 의복으로 직물 문양과 오방색의 배색을 통해 장식성을 추구했다. 용복(戎服)은 치마주름으로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소매가 탈착가능한 가변적 디자인이며, 주립의 재료와 장식으로 장식성이 강하였다. 방령(方領)과 전장후단(前長後短)의 옷을 중심으로 본 기타 무관복식은 디자인의 변화 폭이 넓은 의복이고 직물로 보아 화려함을 과시했던 장식적인 디자인이었다.

조형적 특성은 다음의 네 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첫째, 구조적 활동성은 군사복식의 필수조건으로서 동작을 방해하지 않고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이다. 둘째, 가변적 기능성은 형태나 용도를 바꾸어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이다. 셋째, 심미적 장식성은 장군과 군사의 대외적 위용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요

소이다. 넷째, 사회적 상징성은 오방색으로 소속부대를 표현하는 복식과 주술적 상징 의미를 담은 두정의 배열에서 발견되었다.

주제어

조선시대, 군사복식, 한국적 패션 디자인

Abstract

Military costumes have long had a strong influence on fashion desig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sign and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costumes in the Joseon dynasty to adapt these for Korean fashion design. For this reason, documentary records, paintings and relics were used as research material.

Armor design provided increased motional flexibility through slits and the arrangement of rivets was symbolic. Decorations included images like dragons and the phoenix, and were developed based on five-elements color. Gunbok was active wear because of its various slits and variable design. It was multipurpose functional clothing, pursued through decorative patterns and the five-elements colors of fabric. Yungbok secured an activity space via skirt pleats, and featured a variable design with detachable sleeves. The hat was gorgeously decorative thanks to its material and ornaments. Clothes with a squared neckline or a shorter back had diverse designs and were showy items.

The analysis of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is as follows: First, structural activity, an indispensable condition, is the structure provided for enhancing the activity. Second, variable functionality is the characteristic of providing different functions to change the type and purpose. Third, decorative aesthetics aim to increase the external grandeur of military generals and soldiers. Fourth, social symbolism was found in the costume's expression of the regiment through the five-elements colors, and the arrangement of rivets, which had shamanistic symbolism.

Keyword

Joseon Dynasty, military costume, Korean fashion design

1. 서론

한국의 패션디자인이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국가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해야 한다. 한국복식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이어져 내려오는 디자인 감각과, 오래도록 선호하고 추구해왔던 조형적 아름다움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이란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한국의 복식미를 활용한다는 것이며, 전통복식의 재현이나 모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감각 속에 녹아있는 원형(原形)에 대한 이미지의 표현이며 한국적인 조형감각의 패션화라고 할 수 있다(김지영, 김선아, 2014). 김민자(2009)는 한국적 패션디자인이란 한국 전통 복식미와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한국성(무분별한 서양 패션의 복제성)의 해체를 의미하고, 종적 사고로서 한국 전통 복식미의 특수성과 횡적 사고로서 최첨단 기술과 새로운 정보인 세계 패션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며 이의 융합으로 새롭게 탄생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디자인 소스(design source)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조선시대 군사복식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분석하고 그 속에 내재된 조형적 특성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원삼·활옷·당의 등 궁중여성 예복에 치중되어 있던 패션디자인 전통복식 원천자료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리라 기대한다. 또한 서양의 군복에서 영감을 얻은 밀리터리 룩과 비견하여 한국만의 차별적인 밀리터리 패션을 개발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조선시대 군사들이 착용한 복식으로는 갑주와 군복, 용복, 군줄의 방한복이나 비옷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군줄복식은 유물이 거의 없어 디자인적인 요소를 추출할 수 없으므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이 되는 군사복식은 갑주, 군복, 용복, 기타 무관적 특징을 보이는 방령과 단후의로 제한하였다. 시대는 1392년부터 1910년까지로 한정하였다. 연구자료는 유물·문헌·회화사료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군사복식의 디자인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실록(實錄)·예전(禮典)·법전(法典)·의궤(儀軌)·병서(兵書) 등 각종 문헌에 기록된 군사복식을 유물이나 회화자료와 결합하여 종류별로 구성품목과 각 품목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2단계에서는 군사복식 유물을 대상으로 실증적 고찰을 통해 디자인 요소를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복식품목별로 디자인 요소와 조형적 특성을 정리하고 동일한 조형적 특

성끼리 묶어서 살펴보았다.

2. 이론적 배경

2.1. 조선시대 군사복식

갑주는 갑옷 갑(甲), 투구 주(冑)를 합친 단어로서 갑옷과 투구를 의미한다. 조선시대의 갑옷은 초기에는 『세종실록(世宗實錄)』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전례서에 기록된 대로 찰갑형 갑옷이다. 찰갑형이란 직사각형의 갑옷조각을 가죽끈으로 가로와 세로로 바둑판처럼 연결한 유형으로서, 갑옷조각을 만드는 재료와 가공방식에 따라 철갑옷[鐵甲]·가죽갑옷[皮甲]·종이갑옷[紙甲]·수은갑옷[水銀甲]·버드나무잎갑옷[柳葉甲] 등으로 구분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로는 포(袍) 형태의 의복에 보호막 역할을 하는 갑옷조각[甲札]을 둥근 머리못[頭釘]으로 고정하여 제작했다. 이러한 구조로 바뀌니 갑옷조각의 크기와 형태를 원하는 대로 마음껏 변화시킬 수 있었다. 초기의 투구는 철로 만든 투구로서 차양이 있으면 첨주, 없으면 원주로 나뉘었다. 후기가 되면서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은 가죽이나 종이에 옷칠을 하고 위는 삼지창과 상모(象毛)로 장식하고 아래는 갑옷과 같은 재질로 드림을 달아 뺨과 목덜미를 보호하였다. 시대별로 대표적인 양식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갑옷[甲]	투구[冑]
조선 초기 (세종실록)		
조선 후기 (응원필비)		

[표 1] 조선 초기와 후기의 갑주 양식 변화

군복은 머리에는 전립(氈笠 또는 戰笠)을 쓰고, 바지와 저고리 위에 협수(挾袖, 동다리)를 입고 그 위에 소매없는 조끼 형태의 전복(戰服)을 입은 후 넓은 요대(腰帶) 위에 남색 전대(戰帶)를 겹쳐 매고 수화자(水靴子)를 신은 차림이다. 군관(軍官)과 무관(武官)은 군관과 무관은 원행할 때에는 군복만을 입었으며 왕을 측근에서 호위하거나 전쟁 등의 상황에서는 군복

위에 갑주(甲冑)를,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군복 위에 단령(團領)을 덧입었다(박가영, 이은주, 2004). [표 2]에서 군복의 착용모습과 함께 이를 구성하는 복식 품목을 확인할 수 있다. 전립은 짐승의 털을 축융시킨 펠트(felt)로 만든 챙이 있는 관모이고, 협수는 좁은 소매가 달린 포로서 붉은 색 옷감을 덧댄 것이 특징으로서 이로 인해 동다리로 불리기도 한다. 전복은 동다리 위에 걸쳐입는 긴 조끼로서 군복용 전복은 대부분 검정색 겉감에 붉은색 안감으로 만든 겹옷이다. 여기에 가슴에 남색의 전대를 매어 앞으로 길게 늘어뜨렸다. 왕이나 군관은 넓고 두꺼운 요대를 먼저 두르고 그 위에 전대를 매기도 하였다. 군사복식에는 일반적인 화(靴)보다 신목이 높이 올라오는 검정색 수화자를 신었다.

착용모습	구성품목	
		
	전립 (담인복식미술관 개관기념도록, p.76)	전대 (국립민속박물관, p.270)
		
안필호 초상화(1913) (육군박물관 소장 군사복식, p.26)	협수(동다리) (문화재대관, p.95)	전복 (국립민속박물관, p.138)

[표 2] 군복의 착용모습과 구성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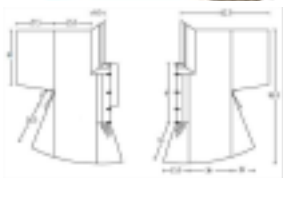
융복은 용사(戎事), 즉 군(軍)에 관계된 일에 입는 옷으로 립(笠) 혹은 중립(騶笠)을 쓰고 철릭[帖裏, 天翼]을 입는 차림이다. 군복과 마찬가지로 활과 화살·동개·칼검 등을 갖추었다. [표 3]은 군복의 착용모습과 이를 구성하는 복식 품목이다. 철릭은 군사들 뿐 아니라 왕 이하 문신까지도 전쟁이나 군사에 관련된 일에 착용했던 복식인 동시에 정신적으로 무장해야 할 때 착용했던 복식이었다(박가영, 이은주, 2004). 영조대 법전인 『속대전(續大典)』에는 당상관의 융복용 관모로 자립(紫笠)을, 당하관의 관모로 흑립(黑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공작깃털이나 호수(虎鬚)를 꽂아 장식하게 하였다. 철릭은 위는 저고리, 아래는 치마가 연결된 상의하상(上衣下裳) 형식으로 허리선 아래로 주름잡은 치마를 연결하여 활동이 무척 편리하였다. 철릭 역시 착용자의 품계와 상황에 따라 색상을 달리 하였다. 당상관은 남색 철릭을, 당하관은 청현색 철릭을 입었는데 동가 시에는 홍색 철릭을 입

도록 하였고, 무예별감은 홍색 철릭, 군악 연주를 담당한 검내취는 황색 철릭을 입었다(속대전, 1746).

착용모습	구성품목	
		
	립 (육군박물관 소장 군사복식, p.23)	광다회 (문화재대관, p.86)
		
	철릭 (문화재대관, p.85)	수화자 (육군박물관 소장 군사복식, p.18)
수교도의 사어 (손운혜, .p.87)		

[표 3] 융복의 착용모습과 구성품목

이밖에도 무관을 비롯한 군사복식으로는 방령(方領)이나 후단의(後短衣)를 들 수 있다. 방령은 네모난 것이 달린 의복으로서 조선시대의 복식명칭이 아니라 후대에 유물의 특징을 보고 방령·방령의(方領衣)·방령포(方領袍)등으로 명명한 것이다. 유희춘이 1567년에서 1577년 사이에 쓴 『미암일기(眉巖日記)』에서 자주 등장하는 방의(方衣) 역시 이 옷을 일컫는 것이라 생각된다. 방령은 주로 임진왜란 이전에 많이 나타나지만 조정(1541-1609), 이응해(1547-1626), 정충신(1576-1636) 등 17세기 전반기의 유물에서도 확인된다. 박성실, 김향미(2002)는 방령의 유래를 갑옷에서 찾았다. [표 4]에서 확인되듯이 갑옷의 깃 형태나 구조가 방령과 흡사하며, 방령 유물의 주인은 대부분 무관(武官)이기 때문이다.

방령	갑옷
	
	두두미갑 (국조오례의, 1474)
신여관(1530초-1580년대) 유물 (한국복식, p.69)	오색단갑 (약학궤범, 1493)

[표 4] 방령과 갑옷의 상관성

앞보다 뒤가 긴 의복류[전장후단;前長後短]도 무관들의 특징적인 복식이다. [표 5]의 오른쪽 뒷모습을 보면 뒷길이가 왼쪽의 앞길이보다 훨씬 짧다. 앞과 뒤의 길이 차이는 일정하지 않으나 뒷길이가 모두 65~70cm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말을 타거나 앉았을 때 엉덩이에 깔리지 않을 정도의 길이이다.



[표 5] 전장후단의의 앞모습과 뒷모습

2.2. 군사복식과 패션디자인

중세 유럽 십자군원정에서 개발된 군사복식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상복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패드를 댄 조끼 형태의 방패막이인 지퐁(gipon), 사막의 햇빛과 먼지로부터 갑옷을 보호하기 위한 의상으로 쉬르코(surcot), 군복의 칼자국인 슬래쉬(slash)와 그로 인한 퍼프(puff), 가문의 문장(紋章, heraldry)의 사용 등은 르네상스 시대에 전성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정홍숙, 1997).

20세기 패션스타일의 하나인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 역시 군사복식이 패션디자인에 적용된 예이다. 1940년대 후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행했던 직선적인 어깨와 짧은 타이트스커트가 대표적이며, 직선적·기능적·활동적·남성적인 특징을 지닌다. 1963년 앙드레 쿠레주와 1966년 이브 생 로랑이 견장과 금빛 단추 등을 활용하여 밀리터리룩을 발전시켰고, 이밖에도 1963년 밀리터리 디자인을 발표한 피노 란체티, 1977년 티에리 뒤편, 클로드 몬타나, 지아니 베르사체, 콩플리세 등이 가죽과 개버딘을 소재로 넓은 어깨를 강조한 밀리터리 트렌치코트를 발표하였다(두산백과). 영국의 브랜드 버버리(Burberry)에서도 군복 아이템이었던 트렌치코트를 세계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보급하였고, [표 6]에서와 같이 현재도 티에리 뒤편

글러, 장 폴 고티에, 펜디, 디올 옴므, 버버리 프로섬 등에서 밀리터리 룩의 새로운 연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표 6] 컬렉션에 발표된 밀리터리 룩의 패션 디자인

현대 패션에 반복되어 표현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밀리터리 룩에 대한 연구는 김지영(1997), 한순자(1998), 윤경은(2003), 홍승완(2007), 추미경, 김혜경(2007), 이송림(2010), 이서희(2011), 김정미(2013) 등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밀리터리 룩은 현대 육군 군복에서부터 영감을 얻는 반면, 이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중세 유럽의 판금 갑옷을 모티브로 패션디자인에 응용한 연구도 진행되었다(김영신, 2005; 최우영, 2009; 박선영, 2010; 이윤지, 201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군사복식이 패션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고 그 영향력 또한 작지 않은 것에 비해 영감의 원천에 대한 연구는 현대 군복과 중세 유럽 갑옷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한국의 군사복식 중 한 가지인 갑옷을 패션디자인과 연결시킨 연구는 대부분 무대상이나 역사드라마를 고증 제작하기 위한 연구였다. 이러한 현황에서 성광숙(1988)의 조선시대 갑옷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나 송미정(2012)의 가야 판갑 갑옷을 응용한 패션문화상품의 디자인 개발은 희소가치가 있는 연구이다.

조선시대 갑옷을 비롯한 군사복식은 조형적 특성이 우수하여 디자인의 원천으로 삼기에 충분하며, 서양의 갑옷이나 군복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는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조선시대 군사복식의 디자인 분석

3.1. 갑옷과 투구의 디자인 분석

조선 후기 갑옷의 기본구조는 타원형의 목둘레선에 앞중심선이 맞닿는 합입형의 반소매 포(袍) 형태이다. 두정을 포의 표면에 고정시킨(riveting) 갑옷과 두석린갑은 곁갑, 안갑, 심갑, 갑옷조각 등을 겹치므로 두께가 무척 두꺼워서 옆선이나 소매배례선을 봉제하지 않고 터놓은 경우가 많으며, 활동성을 위해서 뒤중심은 허리나 엉덩이 아래로 트여있다. [표 7]에서 트임의 위치와 길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7] 갑옷의 구조와 트임

양쪽 어깨에 달린 견철(肩鐵)은 용모양으로 만들어 장식 효과를 주는 동시에 어깨 중심에 놓여서 갑옷의 앞뒤 무게중심을 잡고 상대방이 칼을 내리칠 때 충격을 분산시키고 어깨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표 8]의 왼쪽을 보면 견철은 3~4개의 마디가 연결되어 착용자의 동작에 따라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장식성과 함께 활동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장식 품이다.

두정의 배열을 관찰해보면 규칙성 속에 숨겨진 기호와 상징성이 있다. 기능적인 면만 고려한다면 의복 안쪽의 갑옷조각을 고정시키기 위한 두정의 배열은 가로와 세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갑옷 유물을 보면 두정의 간격에 변화를 주어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바둑판 배열부터 마름모꼴 배열, 십자 배열로부터 중간 중간

두정을 생략하여 크고 작은 사각형을 만든 배열, 세로로 2쌍씩 짝지은 두정을 다시 마름모꼴로 배열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조형 감각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두정의 색을 달리하거나(국조오례의, 1474, 병기도설) 두정의 크기까지도 크고 작은 것을 사용하여(어영청구식례, 1707) 보다 복잡한 배열 양상을 보인다. 두정의 색과 크기가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무한한 디자인 전개를 가능하게 하여 장식성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표 8]의 오른쪽 사진처럼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갑옷 유물은 몸판 뒤쪽에 큰 두정을 7개만 사용했는데 이들의 배열이 북두칠성(北斗七星)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 영웅의 삶을 상징하는 북두칠성을 등에 지고 전장(戰場)에 나아갔던 것이다. 여기서 두정의 규칙적 배열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상징성을 발견하게 된다.



[표 8] 갑옷 견룡장식과 두정의 배열방식

조선시대 갑주는 극도로 화려하게 장식된 복식이었다. 군사의 위용은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였을 뿐 아니라 군관의 위용은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투구 유물에서 쓰개의 앞면과 뒷면, 쓰개 하단의 대철(帶鐵), 이마가리개, 이마가리개 중심의 원형 옥판에는 용이나 봉황으로 장식하였다. 쓰개 하단 양옆으로 탈착형 봉황장식이 부착된 경우, 장식을 분리했을 때 꽃는 부분 역시 용이 조각되어 있다. 여기에 쓰개 하단 앞쪽에 달린 차양이나 쓰개 위쪽 반구형의 덮개[蓋鐵]의 투조장식 또한 용과 당초를 결합한 복합문양이다. 투구의 위쪽으로는 삼지창이나 칠보 보주(寶珠)를 장식하고, 붉은 색 비단실로 상모(象毛)를 달아 군의 기상을 휘날렸다. 갑옷이나 투구 드림의 가장자리를 따라 모피를 둘러고 갑옷 역시 어깨에는 견룡(肩龍) 장식을, 앞자락에는 용장식을, 뒷자락에는 호랑이장식을 부착하였다. [표 9]에서 보이듯이 다종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공예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복식이었다.



[표 9] 갑옷과 투구의 심미적 장식성
(출처 :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 pp.564-585)

갑주의 색상은 오방색(五方色)을 기본으로 전개된다. 조선시대의 군사제도는 음양오행(陰陽五行)을 따라 편제되어 있었고 진법(陣法) 역시 음양오행을 따라 5가지 전투 대형을 주로 연습하였으며, 이때 군사 훈련이나 실전에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대별로 오방색의 복식과 깃발[旗]을 갖추도록 하였다. 『세종실록』에는 5가지 총통의 군사에게 오색 깃발을 투구에 꽂게 명하거나 군사들의 갑주 위에 방색(方色)의 무늬 있는 옷을 덧입게 하자는 상소가 기록되어 있으며, 『악학궤범』에서 조종의 무공(武功)을 찬미하는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를 추면서 청색·백색·적색·흑색·황색의 오색으로 만든 비단갑옷[五色段甲]을 입도록 한 것도 복식의 색상으로 소속을 상징하는 군사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비록 많이 퇴색되기는 했으나 실물의 색도 홍색·황색·심청색·흑색·소색(素色)으로 오방색에 근접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박가영, 2003).

마지막으로 갑주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다중감각적인 디자인이다. 두석린갑주 유물을 보면 붉은 색 옷감 위에 적색·흑색·황색의 낫쇠 갑옷 조각[甲札]이 물고기비늘처럼 엇갈려 겹쳐져 있다. 갑찰들은 강렬한 색의 대비 효과와 곡선 형태의 반복으로 인해 시선을 끄는 힘이 있을 뿐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를 낸다.

3.2. 군복의 디자인 분석

조선시대 군복(軍服) 디자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활동성과 기능성이다. 크고 작은 트임의 위치와 역할들은 모두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를 창출

해내기 위한 도구였고, 이를 구성하는 복식 품목들도 다목적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협수(동다리)와 전복은 모두 트임이 많아서 활동적이다. 조선시대 남자의 포(袍) 중에서 중치막과 소창의는 양쪽 옆트임만 있고 도포는 뒤트임이 있으나 뒷자락이 이를 덮고 있으며 단령 역시 옆이 트여있기는 하나 무가 달린 채 뒤쪽으로 젖혀져 있다. 이에 비해 동다리나 전복은 대창의처럼 뒤트임은 뒤중심을 따라 소매가 달리는 진동선까지 길게 트여있고 옆트임은 짧게 트여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표 10]에서 확인된다. 양옆에 무가 달려있어 활동공간은 넓게 확보한 동시에 트임이 많고 소매는 좁아서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동작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인 것이다. 협수 유물 중에는 겨드랑이 부분에 4-5cm의 인위적인 트임이 있는데 이는 활이나 검 등 무기를 고정시키기 위해 끈을 동다리 속으로 어깨에 걸쳐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로 추정된다(고려대학교박물관, 2008; 권오선, 2002). 트임의 위치로 보았을 때 이는 동다리의 받침 옷으로 입혀진 청색 배자형 옷의 겨드랑이 부분에 달린 끈과 낫쇠고리와 관계된 것이라 여겨진다. 이처럼 겹쳐 입은 옷과 옷 사이의 치밀한 유기적 연결성, 길고 짧은 옷을 겹쳐 입을 때 트임 사이로 보이는 옷자락들이 한국복식의 고유한 레이어드 룩(layered look)을 이루어낸다.



[표 10] 군복의 구조와 트임

군복은 기능성을 추구하는 가변적인 디자인이다. 포(袍)는 길이가 길고 치렁치렁하기 때문에 말을 탈 때 휘날리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 11]과 같

이 동다리와 전복의 옆트임과 앞뒤중심선의 트임, 섹부분에 매듭단추와 단추고리를 달아 필요할 때 단추를 끼우면 종아리에 끈을 묶은 듯이 간편해진다. 실제로 《원행음묘정리의례도첩》(1795)이나 《화성능행도》(1795)에서 이러한 착용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단한 장치를 통해 활동성의 향상과 실루엣의 변화를 추구한 조상의 지혜와 디자인 감각을 깨닫게 된다.



[표 11] 전복과 동다리의 구조와 가변적인 착용모습

군복은 다목적의 기능성 의복이었다. 헝수 혹은 동다리의 소매는 다른 색으로 '이어붙인' 배색(配色)의 개념이 아니라 기본 소매 위에 '덧붙인' 덧소매이다. 이는 비상시 붕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덧댄 것이다 한다. 전대(戰帶) 역시 사선 방향으로 재단한 후 이를 나선형으로 감아 연결함으로써 신축성이 생겨서 위급할 때 압박붕대로 사용했고, 전대의 양끝은 트여 있어 중요한 서류나 물건을 담아서 매고 다녔다고 전해진다. [표 12]의 사례들처럼 군복은 복식의 일부 혹은 품목이 전쟁이나 훈련이라는 특수상황에 맞게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는 기능성 복식이다.



[표 12] 용도 전환의 기능성

화려한 직물 문양과 강렬한 오방색의 배색을 통해 장식성과 심미성을 추구했다. 현재의 의장대(儀仗隊) 의상과 같은 맥락에서, 갑주군복-용복은 국가적 체면이나 위신과 관련된 특별한 복식이었기에 복식금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이었다. 기록을 보면 사(紗)·라(羅)·릉(綾)·단(緞)의 고급 수입직물이나 홍색(紅色), 용무늬(龍紋)를 사용할 수 있었고, 유물로 보아도 전복과 동다리에는 꽃무늬[花紋], 구름무늬[雲紋], 둥근 용무늬[圓龍紋, 龍補紋] 등 화려한 비단 직물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직물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색도 화려했다. 검둥다리는 금갈색이라고 불리는 황색 계열의 길에 다홍색 덧소매가 달리고 푸른색 안감을 사용했다. 여기에 검정색 전복을 겹쳐 입고 동다리의 깃에 흰색 동정을 달면 청·홍·황·백·흑의 오방색(五方色)이 군복에 전부 쓰이는 것이다. 검정색 전복의 안감은 홍색을 사용하여 전복 자락이 펴리면 붉은색이 보이고, 트임 사이로 보이는 주황색 동다리의 안감은 청색 계열을 사용하여 동다리자락이 펴리면 푸른색이 보인다. 여기에 검정색 전립과 수화자, 전립의 붉은 상모와 초록색 공작 깃털이 더해지면 강렬하고 화려한 배색으로 위용을 드높인다.

군복 역시 갑주와 마찬가지로 음양오행사상을 바탕으로 오방색(五方色)을 사용하였다. 군관의 전복 대신 군졸이 착용하였던 호의(號衣)는 색상을 활용하여 소속부대를 상징하였다. 훈련도감 군사들이 착용한 호의에서 동정의 색은 소속된 부(部)를, 깃의 색은 사(司)를, 길의 색은 초(哨)를 나타내었다(만기요람, 1808). 오방색에서 황(黃)은 중앙·중(中), 청(靑)은 동·좌(左), 백(白)은 서·우(右), 적(赤)은 남[後]·전(前), 흑(黑)은 북·후(後)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방색과 호의의 구조를 연결해 보면, 예를 들어 홍색 동정에 청색 깃이 달린 황색 호의를 입었다면 전부(前部) 좌사(左司) 중초(中哨) 소속 군사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군복의 색상으로 소속부대를 가시화하였다.

3.3. 용복의 디자인 분석

용복 디자인의 특징은 철릭의 활동성과 기능성, 머리에 쓴 립(笠)의 장식성으로 축약된다.

철릭은 고려시대에 중국 원(元)나라에서 수입된 포(袍)로서 저고리에 주름치마를 연결한 구조이다. 포의 시원으로 보았을 때 저고리가 연장되어 만들어진 복식이다. 따라서 포의 허리선을 절개하고 치마를 연결한다는 발상은 의복구성[pattern]에 있어서 혁신에

가까웠다. 허리선 아래로 주름잡은 치마를 연결하자 충분한 활동공간이 확보되어 옆트임·뒷트임, 겨드랑이 아래 부착하는 무가 필요없게 되었다. 앉고 서고 달리고 말을 타는데 동작을 구속하지 않았던 것이다.

치마 주름 뿐 아니라 소매에 있어서도 활동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발견된다. [표 13]을 보면 한쪽 소매 혹은 양쪽 소매가 분리되어 있고 매듭단추와 고리를 달아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탈부착 가능한 소매를 만든 것은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활을 쏠 때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왼쪽 소매를 분리했다. 떼어 낸 소매는 전쟁시 봉대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철릭은 가변적인 형태의 의복으로 용도의 전환이 가능한 기능성 의복이었다.

무관 묘의 철릭 63점을 조사 분석한 금종숙(201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매는 한쪽 분리형이 17점, 양쪽 분리형이 26점으로 무관의 철릭 소매는 많은 양이 탈부착으로 제작되었고 치마부분에 트임이 있는 경우도 많았으며 다양한 직물이 사용되었다. 치마부분에 주름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옆트임이나 뒷트임이 있다는 사실은 활동성을 재차 고려한 디자인이었음을 시사한다.

	유물 사진	도식화
16세기 미상 왼쪽 소매 탈착		
이응해 (1547-1626) 양쪽 소매 탈착		
이진승 (1702-1756) 왼쪽 소매 탈착		

[표 13] 철릭의 치마 주름과 탈착식 소매

립(笠)은 차양이 360도로 달린 모자로서, 검은 갓인 흑립(黑笠)은 조선시대 사대부의 대표적인 관모이다. 용복에 착용된 립은 [표 14]의 왼쪽에 있는 말갈기로 만든 종립(鬃笠)이었는데 말의 갈기는 제주도에 서만 나는 특산물이어서 사치품목일 수밖에 없었고 이에 사치금지령이 끊이지 않았다. 용복의 종립이나 군복의 전립에 꽃아 장식했던 공작새 깃털은 취우(翠羽)·공작우(孔雀羽)·공작령(孔雀翎)·공작미(孔雀尾)·작우(雀羽)·수우(秀羽)·방우(傍羽)·영우(嶺羽) 등 다양한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의례나 전례서의 의주(儀註)를 보면 깃털은 의례의 종류나 진행절차에

따라 관모에 꽃은 깃털을 뽑거나 다시 꽃았다. 다음 호수는 정조가 온천에 행차하는 길에 보리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뜻의 표시로 곁에 있던 신하들에게 각자 한 이삭씩 꽃도록 했던 것에서 시작되어 그 후 보리이삭[麥穗] 대신 호랑이 수염[虎鬚]을 꽃아 장식하게 되었다(박가영, 이은주, 2004). 조선 말기의 용복 유물을 보면 실처럼 가는 대나무[細竹絲]를 엮어 대우와 양태를 만들고 여기에 붉은 주칠을 하여 주립(朱笠)을 만들었다. 대우를 따라 호수 등을 꽃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공작 깃털이나 호수는 용복의 장식성을 더해주었다.

종립의 구조 (무예도보통지, 격구관복도설)	공작 깃털 (국립민속박물관, p.79)	호수 (국립민속박물관, p.47)

[표 14] 용복용 립의 장식

3.4. 기타 군사복식의 디자인 분석

방령이나 후단은 하나의 주제를 자유로이 변화시키는 변주곡처럼 디자인의 변용(variation) 폭이 넓은 의복이었다.

대부분의 방령은 앞이 길고 뒤가 짧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장후단의(前長後短衣)가 반드시 방령(方領)은 아니다. [표 15]를 보면 것이 네모난 것도 있고 목둘레선이 둥근 것도 있고, 소매가 없는 것과 짧은 것과 긴 것, 화려한 무늬의 비단으로 만들어진 것과 무늬없는 면직물로 만들어진 것, 옆이 트인 것과 트이지 않은 것도 있다. 앞길리와 뒷길리의 차이도 10여 cm만 나는 것부터 40여 cm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굉장히 크다. 언뜻 보기에는 특별한 공통점을 찾기 어렵지만, 뒷길리가 모두 65-70cm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말을 타거나 앉았을 때 엉덩이에 깔리지 않을 정도의 길이이다. 결국 마상의(馬上衣)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대전제, 즉 뒷길리만 70cm 전후로 맞추면 다른 디자인 요소는 자유롭게 변화시켰던 의복이다. 현재 네모난 깃을 가진 상의와 포류의 명칭을 찾기가 어려운 것은 그만큼 형식의 틀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	뒤
정은 (1481-1538) 방령의 (명선(중), p.141)		
김여온 (1596-1665) 배자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pp.90-91)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창의 (한국 복식 2천년, p.107)		
홍계강 (16세기 추정) 액주름 (명선(중), p.119)		

[표 15] 방령과 전장후단의 디자인의 다양성

직물 문양으로 보았을 때 군사복식은 화려함을 추구했던 장식적인 의복이다. 네모난 것에 반소매가 달리고 뒷길이가 앞길이보다 짧은 옷은 꽃무늬[花紋]나 구름무늬[雲紋]의 화려한 비단인 경우가 많다. 11점의 유물 중에 전(傳) 박장군의 방의 1점만이 면직물이며 7점이 꽃이나 구름무늬가 아름답게 도안된 문단(紋緞)으로 만들었던 점으로 미루어 방령이 말을 타기 위한 실용적 목적 이외에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는 장식적인 목적도 다분히 있었던 의복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이은주, 조효숙, 하명은, 2005).

4. 조선시대 군사복식의 조형적 특성

조선시대 갑주, 군복, 응복, 기타 방령과 후단의의 디자인을 분석한 결과 군사복식의 조형적 특성은 구조적 활동성, 가변적 기능성, 심미적 장식성, 사회적 상징성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종류	디자인 요소	조형적 특성
갑주	트임의 위치와 길이	구조적 활동성
	견철의 분절 구조	구조적 활동성
	두정의 배열(색과 크기 변화)	심미적 장식성
	두정의 배열(특별한 문양)	사회적 상징성
	용과 봉황장식과 공예기술	심미적 장식성
군복	소속부대를 상징한 갑옷	사회적 상징성
	무·뒤트임·옆트임	구조적 활동성
	트임에 달린 매듭단추와 고리	가변적 기능성
	동다리의 덧소매	가변적 기능성
	다목적용도로 사용된 전대	가변적 기능성
응복	화려한 직물 문양과 배색	심미적 장식성
	소속부대를 상징한 호의	사회적 상징성
	철릭의 치마 주름과 트임	구조적 활동성
기타 (방령, 후단의)	철릭의 탈착식 소매	가변적 기능성
	공작깃털·호수로 장식한 립	심미적 장식성
기타 (방령, 후단의)	앞보다 뒤가 짧은 미상용 의복	구조적 활동성
	고급 견직물과 화려한 문양	심미적 장식성

[표 16] 군사복식 종류별 디자인 요소와 조형적 특성

4.1. 구조적 활동성

군사복식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필수조건은 자유로운 활동성, 즉 복식이 동작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갑옷은 배래와 옆선을 전부 트고 단추나 끈으로 여며주었고 뒤트임도 진동선까지 길게 터서 제작하였다. 트임으로 인한 노출은 호액(護腋) 등의 부속구로 가려주어서 활동성과 보호성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갑옷의 어깨부분에 부착하여 무게중심을 잡고 쇄골을 보호하는 견철은 동작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마디로 분절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군복으로 착용된 동다리와 전복은 옆선에 삼각형 무를 달면서도 여기에 긴 뒤트임과 짧은 옆트임을 주어서 활동을 자유롭게 하였다. 한편 응복으로 착용된 철릭의 경우 허리선 아래로 주름을 많이 잡은 치마를 연결하면서도 옆트임이나 뒤트임을 만들어 동작에 편리하도록 만들었다. 이 밖에도 무관의 복식은 앞보다 뒤가 짧아서 말을 타기 편리한 의복이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형되어 제작되고 착용되었다.

4.2. 가변적 기능성

복식에 있어서 가변적 스타일링이란, 열린 구조를 근간으로 하나의 의상을 착장방식을 달리하여 여러 가지 스타일링이 가능한 것으로 그 원형이 보존되는 스타일링을 의미한다. 가변적 스타일링을 유도하는

디자인은 다트와 구조선이 배제된 평면으로 확장이 가능한 개방성을 지닌 구조이고, 패스닝 시스템의 특성이 응용되어 가변적 스타일링을 유도한다(김혜리, 2013). 이는 현대 패션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이지만, 조선시대 군사복식 중에도 상당히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군복으로 착용된 동다리와 전복 유물 중에는 트임에 단추와 고리가 달려있어 말을 탈 때 단추를 잠그면 포의 자락이 펼쳐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평면구성의 한국복식에 매듭단추라는 패스닝 시스템이 결합하여 가변적 스타일링을 구현한 사례이다. 동다리의 덧소매나 전대는 형태가 변화하는 대신 필요에 따라 용도가 변화하여 새로운 기능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가변적 기능성을 나타낸다. 철릭의 분리형 소매는 활을 쏘는 등의 동작을 위한 활동성 증진의 의미로 볼 수도 있으나 매듭단추로 연결된 소매를 분리하여 반소매형의 복식으로 형태변화를 유발하였다는 면에서 가변적 스타일링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4.3. 심미적 장식성

갑주를 비롯한 군사복식은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이다. 특히 장군의 갑주는 그 집단을 대표하여 위용을 높여야하기 때문에 장식성이 최고조에 이른다. 그런데 국가별로 화려함을 표출하는 양식은 모두 다르다. 유럽에서는 판갑의 갑옷조각 표면에 문양을 상감해 넣었고 일본은 찰갑의 갑옷조각을 연결하는 매듭끈의 색상 변화와 금속부분의 조각을 섬세하게 장식하였다. 중국 청(淸)나라에서는 조선과 비슷한 양식으로 갑옷조각[甲札]을 의복에 두정으로 고정하였으나 의복의 직물에 화려한 자수를 놓고 의복의 조각마다 가장자리에 선을 돌려주었다.

조선의 군사복식에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한 면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갑옷 표면에 보여지는 두정의 색상·크기·배열을 다양한 조합으로 변화시켜 개성을 표현하였고, 왕실에 한정되었던 용과 봉황문양을 최고의 공예기술로 투구와 갑옷에 장식하였으며, 오방색을 동시에 사용한 배색과 화려한 문양의 견직물로 의복을 만들고, 군복과 용복의 관모인 전립·중립·주립에는 공작깃털이나 호수를 꽂고, 옥·밀화·수정 등의 보석으로 모정과 입영을 꾸며주었다. 이로 인해 사치금지령이 반복될 정도였다.

4.4. 사회적 상징성

음양오행사상을 바탕으로 군사체제와 병법훈련은 오위(五衛), 오군영(五軍營), 속오군(束伍軍), 오위진법

(五衛陣法) 등으로 전개되었다. 군사는 각자의 소속에 따라 오방색의 복식을 입거나 복식의 부위별로 부대 단위를 구분하여 오방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갑옷, 호의와 깃발 등에서 색상을 사용하여 소속부대를 나타내었다.

다른 차원의 상징성도 발견된다. 갑옷에 두정을 고정할 때 크기가 다른 두정을 배열하여 복두칠성을 표시하는 주술적 상징성의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특성	디자인 요소	사례
구조적 활동성	갑옷 트임의 위치와 길이	
	갑옷 견철의 분절 구조	
	군복의 무·뒤트임·옆트임 동시 활용	
	철릭의 치마 주름과 트임	
가변적 기능성	앞보다 뒤가 짧은 마상용 의복	
	군복 트임에 달린 매듭단추와 고리	
	동다리의 덧소매	
	다목적으로 사용된 전대	
심미적 장식성	철릭의 탈착식 소매	
	갑옷 두정의 색·크기·배열 변화	
	갑옷·투구의 용·봉황장식과 공예기술	
	군복의 화려한 직물 문양과 배색	
사회적 상징성	공작깃털·호수로 장식한 중립·주립	
	화려한 문양의 비단 방령·후단의	
	갑옷 두정의 배열(특별한 문양)	
사회적 상징성	오방색으로 소속부대를 상징한 갑옷	
	오방색으로 소속부대를 상징한 호의	

[표 16] 조선시대 군사복식의 조형적 특성

조선시대의 군사복식이 패션디자인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아이템별 디자인 요소를 추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형적 특성과 원리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군사복식에서 보이는 구조적 활동성은 스포츠웨어나 아웃도어웨어 디자인에 직접 응용될 수 있다. 둘째, 가변적 기능성은 현대 사회가 글로벌화됨에 따라 패션디자인에서 자주 발견되는 특성으로 평면으로 확장 가능한 개방적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착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이 연출되는 디자인이다. 패스너를 이용한 실루엣과 착용목적의 변화, 다기능성 의류는 현대 패션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부합한다. 셋째,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심미적 장식성은 의복의 기원 중 하나로 꼽힌다. 두정의 배열규칙과 다양한 조합 속에서 선조들의 미의식을 확인할 수 있고 재료의 조합방식, 공예적 기법, 문양 등은 각각 패션디자인 요소로 사용 가능하다. 넷째, 오방색의 배색 원리와 곳곳에 주술적 상징기호를 포함시키는 디자인은 군사복식 뿐 아니라 한국복식 전체에서 보여지는 특징이다. 이러한 조형적 특성, 디자인 요소들이 패션디자인에 응용될 때 한국적 밀리터리 룩을 표현할 수 있다.

5. 결론

현대 패션과 한국의 전통복식 요소를 결합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개발함에 있어 새로운 디자인 리소스를 개발하고자 유물·회화·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군사복식의 디자인을 분석하고 조형적 특성을 추출하였다.

연구결과 갑주의 디자인은 여러 가지 재료를 겹쳐 만들면서 과생된 두께로 인해 소매배래선과 옆선을 트고 여기에 뒤트임을 길게 만들어 활동성이 뛰어나다. 보호와 장식을 위해 어깨에 달린 견철은 동작에 방해되지 않도록 마디를 나누었다. 갑옷은 두정의 색과 크기와 배열을 달리함으로써 무한한 디자인의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장식성과 함께 주술적 상징성을 담은 경우도 있었다. 갑옷과 투구는 곳곳에 용과 봉황으로 장식하였고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공예기술로 장식품을 만들어 꾸며주었다. 갑옷 혹은 갑옷 위에 덧입는 옷을 오방색으로 만들어 소속을 상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동다리와 전복으로 구성된 군복의 디자인은 옆선에 무를 부착한 동시에 뒤트임과 옆트임을 활용하여 활동공간을 확보하였다. 말을 탈 때에는 트임에 달린 매듭단추를 고리에 걸어 종아리 부분을 묶어준 형태

로 변화시킴으로써 포의 자락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였고 동다리의 소매 끝에 덧댄 붉은 색 소매나 허리에 묶는 남색 전대는 필요에 따라 봉대나 가방의 용도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직물 문양과 오방색의 배색 체계로 화려함을 추구하였고, 호의는 부위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소속부대를 상세히 표현하였다.

용복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철릭은 넉넉한 치마주름으로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여기에 옆트임이나 뒤트임을 더하여 활동성을 더욱 높이기도 하였다. 매듭단추와 고리로 탈부착 가능한 철릭 소매는 활을 쏠 때의 활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매를 분리시켜 반소매 옷으로 변화하는 가변적 스타일링을 유도하였다. 머리에 쓰는 립에는 공작 깃털이나 호수 등을 꽂거나 뿔아서 정해진 의례절차를 따르는 한편 사치스러운 장식으로 금지령이 거둬지기도 하였다.

그 밖에 네모난 깃이 달린 방령(方領)이나 뒷길이가 짧은 후단의(後短衣)는 앞보다 뒤가 짧아 말을 타기에 적합한 활동적인 디자인이었고 갑주·군복·용복과 더불어 꽃무늬, 구름무늬 등 고급 비단으로 화려함을 통해 신분을 과시하는 면모가 보였다.

각각의 디자인을 분석한 결과 조선시대 군사복식의 조형적 특성은 구조적 활동성, 가변적 기능성, 심미적 장식성, 사회적 상징성의 네 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첫째, 구조적 활동성은 군사복식의 필수조건으로서 동작을 방해하지 않고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이다. 갑옷과 군복의 트임, 갑옷 견철의 분절 구조, 철릭의 치마주름과 트임, 뒷길이가 짧은 후단의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가변적 기능성은 군복 트임에 달린 매듭단추를 채워 말타기 편한 실루엣으로 바꾸거나 철릭의 소매를 분리하여 활쏘고 움직이기 편하도록 형태를 바꾸는 경우와 동다리의 덧소매, 전대가 용도를 바꾸는 경우로 구분되었다. 셋째, 심미적 장식성은 군사복식 중에서도 갑주에서 흔히 발견되는 특성으로 두정의 배열방식, 용과 봉황의 공예적 장식, 고급 직물과 문양과 배색, 관모의 장식 등에서 확인된다. 넷째, 사회적 상징성은 오방색으로 소속부대를 표현하는 복식과 주술적 상징 의미를 담은 두정의 배열에서 발견되었다.

이상에서 조선시대 군사복식의 종류와 디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조형적 특성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선시대 복식 분석에 치중하여 현대 패션과 연계시킬 가교점을 적극적으로 찾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후속연구로는 조선시대 군사복식을 현대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미적 특징과 표현 방법에 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현대 군복이 밀리터리 패션에 응용된 디

자인 전개양상이나 중세 유럽 갑옷에서 영감을 얻은 패션디자인의 발상과정 등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적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박물관 (편) (2008). 『고려대학교박물관 명품도록(名品圖錄)』.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13).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 국립민속박물관 (편) (1995). 『한국 복식 2천년』.
- 국립민속박물관 (편) (2005). 『한민족역사문화도감의생활』.
- 권오선 (2002). 「조선후기 동다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금중숙 (2010). 조선시대무관(朝鮮時代武官)의 칠릭[帖裏] 연구. 『복식문화연구』, 18(5), 960-976.
- 김민자 (2009).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제다움 찾기 : 전통미와 현대적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영신 (2005). 「근세유럽의 판금갑옷을 모티브로 한 가죽의상 디자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미 (2013).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밀리터리 룩에 관한 연구: 2010년 이후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5(6), 862-873.
- 김지영 (1997). 「밀리터리 패션에 관한 연구: 1960년대 이후 여성패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김선아 (2014). 국제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 2000년 이후 색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42, 183-190.
- 김혜리 (2013). 「현대 패션에 나타난 가변적 스타일링」,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편) (2005). 『名選(中): 민속·복식』.
- 담인복식미술관 (편) (1999),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개관기념도록』.
- 두산백과 doopedia. (2014.9.28.), <http://www.doopedia.co.kr/>
- 문화재관리국 (편) (1987). 『한국의 갑주』.
- 문화재청 (편) (2006).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2: 복식·자수 편』
- 박가영 (2003). 「조선시대의 갑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가영, 이은주 (2004). 정조시대의 군사복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한복문화』, 7(3), 129-143.
- 박선영 (2010). 16세기 갑옷을 응용한 패션 디자인. 『한국디자인포럼』, 26, 57-66.
- 박성실, 김향미 (2002). 조선시대 기능적 마상의류의 실증적 고찰. 『한국복식』, 20, 29-86.
- 성광숙 (1988). 「朝鮮時代의 갑옷과 官隸服 裝飾을 응용한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윤희 (2012). 「조선 후기 왕세자 입학례 복식 고증」,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정 (2012). 「가야(伽倻) 유물을 응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웹 콘텐츠 개발」,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육군박물관 (편) (2012). 『육군박물관 소장 군사복식』.
- 윤경은 (2003). 「전투복을 응용한 현대 밀리터리 룩 디자인연구 : 1,2차 세계대전 전투복의 기능적 디테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서희 (2011). 현대패션에 나타난 밀리터리룩 연구 및 디자인 개발. 『조형미디어학』, 14(2), 149-158.
- 이송림 (2010).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의 시뮬라시옹(Simulation)연구: 고대로부터 르네상스 이전까지 군복에 대한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의 시뮬라시옹(Simulation). 『패션비즈니스』, 14(5), 1-20.
- 이윤지 (2012). 『중세 갑옷과 현대 디자인의 응용』. 안양 : 라온북.
- 이은주, 조효숙, 하명은 (2005). 『(길짐승 흉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서울 : 민속원.
- 정홍숙 (1997). 『서양복식문화사(개정판)』. 서울 : 교문사.
- 최우영 (2009). 「중세 유럽 갑옷의 조형성을 응용한 여성용 수트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미경, 김혜경 (2007). 파리 컬렉션에 나타난 밀리터리 룩 연구. 『복식』, 57(8), 137-151.
- 한순자 (1998). 밀리터리 룩의 스트리트 패션화에 관한 연구. 『경원전문대학 논문집』, 20, 381-401.
- 홍승완 (2007). 「밀리터리적 요소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1474).
- 『만기요람(萬機要覽)』 (1808).
- 『속대전(續大典)』 (1746).

- 『악학궤범(樂學軌範)』 (1493).
- 『어영청구식례(御營廳舊式例)』 (1707). 마이크로 필름 MF35-766, 청구기호 K2-3346.
- 『용원필비(戎垣必備)』 (1813).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사이트. (2014.9.21.), <http://sillok.history.go.kr/>